

시온 주보

제2426호 2022년 12월 18일(가해)

대림 제4주일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간지(인)를 위한
등신변행용 바코드를



입당송 | 이사 45,8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제1독서 | 이사 7,10-14

화답송 | 시편 24(23),1-2,3-4,5-6(◎ 7드과 10드 참조)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
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
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

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
대라네. ◎

제2독서 | 로마 1,1-7

복음환호송 | 마태 1,23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
엘이라고 하리라. ◎

복음 | 마태 1,18-24

영성체송 |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라 하리라.



마음이 담긴 선물

선물은 준비하셨나요? 크리스마스가 코앞입니다. 선물 받을 준비는 하셨나요? 말씀이 사람이 되신 엄청난 신비의 선물을 받아들이 준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주고받는 선물 가운데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대화에서 취향을 읽어 내고,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고민하며 마련된 선물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소한 선물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을 읽어 내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고맙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육화의 신비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 스스로 선물이 되어 주신 마음이 녹아 있음을 읽어내면, 그 고마움의 크기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느님 선물에 담긴 마음을 읽고 나면, 그 고마움의 크기와 대상은 끝없이 확장됩니다.

하느님의 마음이 담긴 선물에 요셉 성인의 마음도 담겨 있음을 오늘 복음(마태 1,18-24)은 전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자렛 마을에 사는 다윗 가문의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갔다고(루카 1,28) 루카 복음사가가 전한다면, 마태오 복음사가는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으로 들어갔다고 전합니다. 성경 시대의 꿈 이해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압박에 대한 실마리라는 현대적 해석과는 다릅니다. 그 시대는 꿈을 미래에 대한 안내로 이해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드러나는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야곱(창세 28,10-17)과 요셉의 꿈(창세 37,5-

11)이 그러했으며, 이방인 왕들의 꿈 역시 그들 왕국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것임을 다니엘서가 전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자신의 꿈으로 들어온 주님의 천사의 전언을 꿈같은 이야기로 흘려듣지 않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담겨 있는 권유로 읽어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마태 1,20) 경험과 배움을 마음에 간직한 이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생각을 굳혔을(ἐνθυμήσας) 때, 또 다른 마음이 담긴 소리가 그의 내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소리에 담긴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그렇게 읽어낸 마음에 참여했습니다. 하느님 마음이 담긴 선물에 요셉 성인의 마음도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당신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하느님의 선물에는 이처럼 고마운 마음들이 끊임없이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적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시민(civis idem et christianus)으로 이해됩니다. 그 시민은 신앙의 진리에 참여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가치에 동참합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교회와 세상은 그리스도인 시민을 통해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인 시민은 사회적 가치를 살아가며 자기 생각을 굳혔을 때, 내면을 파고들어 온 신앙의 진리를 함께 읽어냅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에 신앙의 진리를 더해 갑니다.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선물에 마음을 더합니다. 하느님이 마련하신 선물에 작은 마음 하나 살짝 더해 봅니다.



당고개성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로마 1,7)



사진
설명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성모님의 미소가 인자합니다. 어린 소녀가 성령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을 이겨낸 성모님과 천사의 계시를 기꺼이 받은 요셉의 믿음이 어두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빛을 밝혔습니다. 성모님 앞에 밝히는 작은 촛불이 축복이 되어 삶의 구석구석까지 사랑으로 스며들기를 온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평화를 빕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판공성사표를 받고



이충렬 실베스테르 | 전기 작가

대림 시기가 시작될 즈음 구역장님을 통해 판공성사 표를 받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줄줄이 고해하고 참회할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성사표 아래에 “이번 판공성사가 은총의 성사가 되기를 빕니다.”라는 문구를 보자 용기가 생기면서, 얼마 전에 본 두 편의 영화 속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지난 11월 30일에 개봉된 <탄생>이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를 다룬 이 영화에는 신부님이 안 계시거나 만나기 힘들었던 박해 시대 신자들이 고해성사의 기회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경기도 용인의 은이 공소 교우촌에 오시자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 줄을 길게 섰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을 모시고 온 복사가 신부님께서 오래 머무실 수 없으니 3분 안에 고해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당시 신자들은 지은 죄를 모두 고해해야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에, 신부님께서 안 계시던 시절에 지은 큰 죄뿐 아니라 작은 죄까지도 모두 고해하느라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생>에 등장하는 모방 신부님은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효과적으로 보게 하려고 성사의 요령과 문답표를 한문과 한글로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떠올린 영화는 12월 말에 개봉할 예정인 <이태석>입니다. 얼마 전 시사회를 통해 미리 볼 기회를 얻었는데, 이 영화에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6년 남수단 톤즈 인근 마을의 공소 뒤편 별판에서 의자 두 개를 놓고 고해성사를 봤던 소년과 소녀가 당시의 고해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13살이었던 소년은 그 전날 자신이 두드리던 북을 말없이 가져간 친구와 싸운 일이 마음에 걸려 그 일을 고해했는데 “이태석 신부님께서 기도하는 방법과 하느

님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라고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태석 신부님께 고해했던 소녀는 이제 아이 엄마가 되었지만, 당시 미사에 입고 갔던 옷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며 보여주는데 정말 사진의 옷과 같은 옷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고해하던 사진을 보니까 가슴이 계속 뒹뒹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을 만나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신부님께서서는 아버지처럼 좋은 얘기도 해주셔서, 신부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부님을 통해 위로받던 어린 영혼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 오히려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은총의 성사’의 힘이 아닐까요? 그날 멀리서 고해성사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으셨던 대전교구 박진홍 신부님께서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이고, 사제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개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며 당시를 회상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영화 덕분에 어느 때보다 판공성사 은총을 가득히 받았고, 이 은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한컷 묵상



류상애 아네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43

가톨릭 신학 강좌를 마치며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지난 1년간 이곳에 신학 강좌를 연재했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의 출발점, 핵심, 결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20,31)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고백은 요한복음서의 주제이고 신약성경의 주제이며 그리스도교 전체의 핵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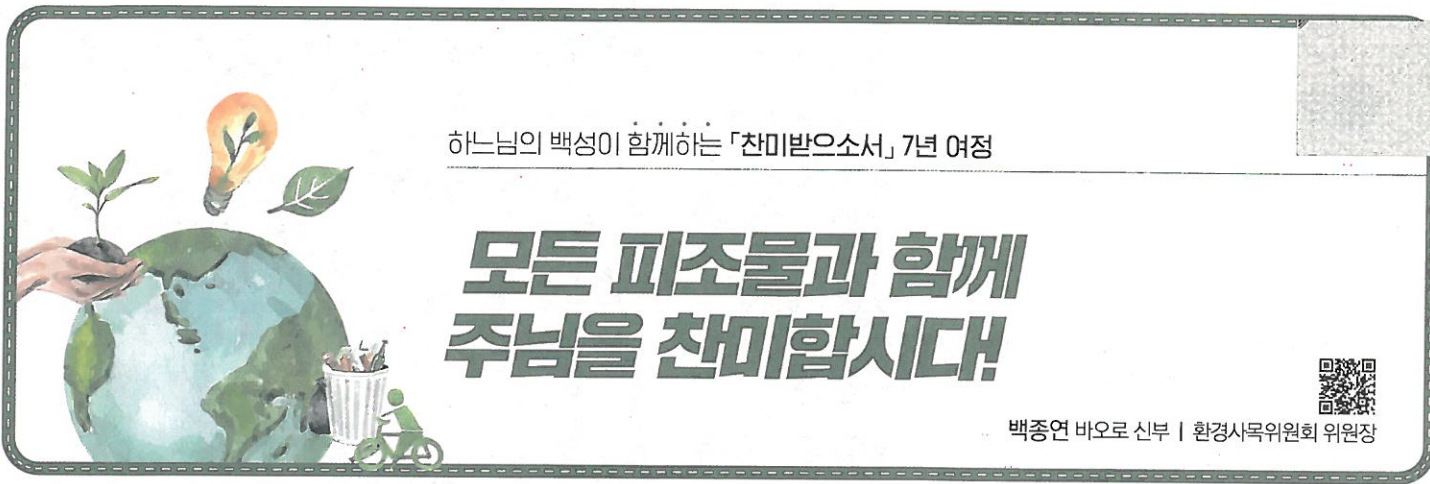
‘신학’(神學 Theo-logia)이란 ‘하느님’(Theos)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Logos) 학문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인간은 스스로 깨닫거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인간과 세상을 초월해 존재하시기에 인간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절대 알 수 없고, 오직 ‘계시’(啓示 Revelatio)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란 ‘하느님께서 하느님에 대해 알려주신 것’이고, 계시의 대표적 형태가 ‘성경’과 ‘성전’(聖傳, 교회의 전통 내지 전승)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느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초기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체험한 후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하느님의 말씀(=로고스)이 사람이 되신 분’(요한 1,14 참조)이 예수님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을 시고, 한 처음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기에,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요한 1,3)고 합니

다. 예수님 = 하느님 말씀 = 로고스 = 하느님의 외아들 = 유일한 구세주라는 신앙고백이 요한복음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 당신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셨고, 예수님은 하느님의 계시 중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는 사람입니다.(요한 14,7 참조)

그리스도교에서 신학이란 로고스(Logos)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Theos)을 알고 깨닫는 학문입니다. 또한 신앙의 목적이 ‘하느님을 직접 마주 뵈게 되는 것’(=지복 직관, 1코린 13,12; 1요한 3,2)이라면, 신앙의 중심인물 역시 예수님입니다. ‘로고스’(Logos)를 서로 나누는 것이 ‘대화’ 혹은 ‘친교’(Dialogos)이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 인간과 인간 사이 친교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신학과 신앙의 출발점이자 핵심이자 결론이라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인간의 은총과 행복과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우리와 함께 사셨던 예수님에게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결국 참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Nihil amori Christi praeponere.’(아무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 더 낫게 여기지 마라. -성 베네딕토)

그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모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찬미합시다!



백종연 바오로 신부 |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성경에는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찬미, 찬양하는 기
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물과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아.”(시편 69,35) “주님
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반짝이
는 모든 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의 하늘아,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시편 148,3-4) 다니엘서에서 세
젊은이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을 찬송하고 영광
을 드리며 찬미하였습니다.(다니 3,51-90) 프란치스코 교
황님께서도 피조물과 함께 기도할 것을 권유하시며 회
칙 「찬미받으소서」에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실으셨습니다. 이렇듯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는 것은 소중한 그리스도교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찬
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주님을 찬미할 이웃 사람
들과 이웃 피조물들이 처해있는 불의한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적절한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신앙인
들이 그들과 함께 제대로 찬미의 기도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 활동의 결과로 하늘과 땅과 물이 오
염되고 동식물들은 멸종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각
한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뭄은 심해지고,
홍수는 잦아지고, 태풍의 위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
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미세먼지와 공해로 가득
한데 ‘하늘아, 주님을 찬미하라’ 하고 기도하고, 주변에
는 쓰레기가 쌓여있고 폐수가 흐르는 하천을 옆에 두고
서 ‘물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
할 수 있습니까? ‘형제자매들이여,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고통에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
만 보고 있다면 그 찬미 기도가 주님께 드리기에 합당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려면 공동의 집 지구의 다른
구성원들이 합당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살피
고 그들과 정의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행동에 나서며
“돌봄의 문화”(「찬미받으소서」, 231항)를 만들어야 하겠습니
다. 산업화 시대 이후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를 지
구 대기 중에 퍼뜨리면서 소위 경제적 부를 축적해온
인간 문명은 극단적인 빈곤의 증가와 생태계 파괴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피조물과
동료 인간의 권리에 대한 존중은 이익 창출이라는 목적
에 밀려 소홀히 여겨져 왔습니다. 이제는 공동의 집의
모든 구성원이 더불어 사는 문화, 문명으로 전환을 하
루빨리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자연과 가난한 이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공동의 집의 다른 피조물들과
가난한 이들의 삶의 질을 제대로 돌볼 때, “자기 자신
을 내주는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찬미받으소서」,
232~233항)

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께 온전한 찬미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마태 24, 38-39)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길 또한 바
랍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메시지를 온전히 실현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필요한 지혜
와 용기를 청합니다. 아멘.

신앙의 세계로 이끄는 단순하고 소박한 작품



124위 복자화 전채도_새벽 빛을 여는 사람들 | 김형주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 | 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우리 주변의 많은 예술가가 교회에 봉사하며 사람들을 진선미(眞善美)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이끌어줍니다. 특히 미술가들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쏟아부은 작품을 통해 멀리 계시는 듯한 하느님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성당은 세상에 있는 하느님의 거처이면서 그분 백성의 집입니다. 성당의 아름다운 유리화와 성화, 성상과 성물을 통해 이 세상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며 신앙의 세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김형주(이멜다) 화가는 1970년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후 오래전부터 성미술품을 만드는데 헌신 중입니다. 그가 만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주제의 작품들, 십자가의 길, 그 외 성물은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면서 소박합니다. 특히 종탑 위의 십자가는 작가가 사방에서 십자 형태를 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는 성화와 유리화, 여러 성물을 제작하면서 이런 말을 즐겨하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로, 글 쓰는 사람은 글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저는 매일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으로 가장 깊이 들어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평생 성화 제작에 몰두한 김형주 화가는 2002년 가톨릭 미술상 회화 본상을 받았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주례한 124위 시복식 때 걸린 복자화 <새벽빛을 여는 사람들>도 제작했습니다.



최양업 신부 | 2020년, 배론성지 성당, 김형주

2020년에는 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한국 103위 순교 성인 초상화 작업’에 참여해 성인 여섯 분을 그렸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가정자 최양업(토마스, 1821-1861) 신부의 묘소가 있는 배론성지(충북 제천) 성당에 걸어들 <최양업 신부>의 전신 초상화를 완성했습니다.

김형주 화가는 전국의 여러 성당과 수도원, 교회 기관에 성화와 성물을 많이 제작하였습니다. 서울대교구에는 가톨릭교리신학원 경당, 동작동성당, 성내동성당, 수락산성당, 압구정1동성당, 장한평성당, 청량리성당, 흑석동성당(가나다순)에 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 서울주보에 연재했던 ‘미술 칼럼’을 마칩니다. 매월 한 번씩 교회 미술품 제작에 헌신한 작가를 소개했지만 한정된 횟수로 소수의 작가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예술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교회에 봉헌하는 작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만든 성미술품을 통해서 성당은 더욱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한 가운데서 빛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① 편

#미디어_리터러시 #정보_문해력 #금모닝특강



김광두 고스마 신부 | 사목국 기획연구팀



찬미 예수님, 유튜브 세계를 여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가이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다양한 주제로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매달 계속 떠먹여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지라 오늘은 연재를 마무리하며 엄청나게 다양한 영상들이 모여 있는 유튜브 세계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좋은 것들은 얻고, 나쁜 것들은 피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과 십수 년 전만 하더라도 영상을 대중에게 방송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대중에게 전하는 일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송국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도 가정용 캠코더로 개인이 영상을 기록하고 나름대로 편집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대중에게 보여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술적인 장벽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의 사명 선언도 이러한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목소리를 드리는 것이며, 그 목소리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튜브는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곳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TV에서 봤다면 상당히 믿을만한 정보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TV와 비슷한 영상 포맷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정보가 믿을만한지를 담

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해야 할까요? 우선 어떤 미디어 콘텐츠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육하원칙이 도움이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누가?’와 ‘왜?’를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으로 잘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②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서울주보 같은 신문, 도서 등의 레거시 미디어^③들을 통해 보다 검증된 정보를 함께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기준을 두고 성령의 지혜를 청하여 나쁜 것은 멀리하고 좋은 것들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면 관계상 다 못 드린 말씀은 지난 5월에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채널 ‘금모닝 특강’을 통해 말씀드렸던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세계 여행에 동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여행기록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월례 미사&특강

- “유튜브 세계를 여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가이드(김광두 고스마 신부)”

- ①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는 ‘미디어’와 ‘리터러시’의 합성어로, 미디어 정보 활용 능력을 의미합니다.
- ② 뉴미디어는 전자 공학 기술이나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전달 매체를 말합니다.
- ③ 레거시 미디어는 정보화 시대 이전에 우위를 점했던 대중 매체를 말하며 올드미디어라고도 합니다.

2022
Christmas fest

명동성당 일대
12.23(금) - 25(주일)

성탄 음악회
주교좌 명동대성당
12.23(금) 20:00

성탄 마켓
가톨릭회관 광장
12.24(토) 11:00 - 21:30
12.25(일) 11:00 - 21:30

연극 -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파밀리아채플
12.23(금) 18:30
12.24(토) 16:00, 18:30, 20:30
12.25(일) 17:00, 19:00

공연 - cpbc소년소녀합창단
명동성당 들머리
12.24(토) 17:30, 19:30

공연 - 아코디엠
명동성당 들머리
12.24(토) 18:30
12.25(일) 12:00

-
명동밥집
12.25(일) 12:40

공연 - 멜랑쉬 오페라단
명동성당 들머리
12.24(토) 20:30
12.25(일) 18:30

공연 - 브라스 '비상'
명동성당 들머리
12.24(토) 21:30
12.25(일) 20:30, 21:30

공연 - 무지카스카라 소년합창단
명동밥집
12.25(일) 11:00
-
명동성당 들머리
12.25(일) 13:40

공연 -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
명동성당 들머리
12.25(일) 17:30, 19:30

별을 따라
함께

명동
거리
별을
따라
함께

주최
진주교 시립대학교

후원
서울특별시
평화누리 평화상조
SML 삼광의료재단

서울대교구 묘원 설 성묘 안내

1) 천주교 용인추모공원 설 성묘 안내

미사: 2023년 1월 15일(주일) 10시 / 차량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장묘관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미리 전화 예약(02)727-2225 후 송금하셔야 자리 배정이 가능합니다.(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 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 차량 도착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

승차권 예매: 12월 19일(월)부터 선착순 자리 배정(1매 1만 5천 원- 조기 마감 가능) / 문의: 02)727-2225 장묘관리팀
계좌: 우리은행 1005-604-153436 천주교용인추모공원
마스크 미착용 시 차량 탑승 및 경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2) 천주교 비봉추모관 설 성묘 안내

미사: 2023년 1월 15일(주일)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내 1층 미사 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명동 및 도림동성당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미사참례, 봉안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인사 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서경룡 신부	휴양	정직
박도진 신부	압구정동 본당 부주임	정직

12월 25일(주일)은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에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성대하게 기리고자 구유 경배와 함께 밤, 새벽, 낮 세 번의 미사를 봉헌합니다. 밤 미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실을 전하는 복음을, 새벽 미사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음을, 낮 미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전하는 복음을 봉독합니다. '성탄 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부터 주님 세례 축일까지입니다.

가톨릭평화방송 TV · 라디오 성탄 미사 생중계

명동대성당 밤미사	12월 24일(토) TV 23시 45분 · 라디오 24시
명동대성당 낮미사	12월 25일(주일) TV · 라디오 12시
바티칸 밤미사	12월 25일(주일) TV 3시 20분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00년 12월 20일 이내수 아우구스티노 신부(38세)
- 2011년 12월 22일 용동진 바오로 신부(56세)
- 2013년 12월 20일 김진규 다니엘 신부(36세)
- 2014년 12월 21일 박노현 요한크리스토토모 신부(67세)
- 2021년 12월 22일 김택암 베드로 신부(83세)

교구청알림

26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2023년 3월3일~11일(8박9일)
주관: 성서못자리 / 지도: 이주형 신부
문의: 010-6734-0190 소 소화테레사

발달장애인 첫영성체를 위한 봉사자 교육

때, 곳: 2023년 1월14일(토) 10시~17시, 영성센터(명동)
회비: 5만원(교재, 식사 포함)
접수: 홈페이지(www.cafema.or.kr) 참조
문의: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신년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2023년 1월5일(목) 오후 2시~3시, 가톨릭 회관 1층 강당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송영호 국장신부, 김운상 차장신부(해외선교부사국)

사순부활 묵상곡을 위한 성음악 합창 심포지엄(성음악위원회)

대상: 전국 모든 가톨릭 성가대(본당, 청년, 장년 등)
때: 2023년 1월28일(토)
접수 및 등록: 2023년 1월3일(화)~20일(금)까지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asm.co.kr) 참조
곳: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중림동)
문의: 02)393-2213~5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사무국

서울대교구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내용 참조 / 신청: 본당 사무실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날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49차 미사 12월2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함흥교구 나남 본당, 청진 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복날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장천석 개인전 '골목길시네마전': 1, 2 전시실
전시일정: 12월14일(수)~26일(월)
갤러리1898 기획 '성미술청년작가공모전' 선정작가
유정희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2월21일(수)~26일(월)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종 '김진구 안드레아'
때: 매월 셋째주(화) 12월20일 오전 10시(181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023년 명동대성당 하반기 혼인 예약 안내

7월~12월: 2023년 1월13일(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홀
추첨은 한 커플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이 불가합니다 / 문의: 02)774-1784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첨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 / 문의: 010-7197-1390

때: 12월28일(수) 19시30분 / 대상: 미혼 남녀 청년
곳: 착한목자수녀회(주최, 전철 2·7호선 건대입구역)

노들담 청년 송년 피정(노들담수녀회)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선착순 7명
때: 12월30일(금) 20시~2023년 1월1일(일) 15시
곳: 노들담수녀원(인천 계산동) / 문의: 010-3930-6730

송년 감사 피정 / 문의: 010-9816-0072

대상: 길을 찾는 35세 미만 미혼 여성
때: 12월31일(토)~2023년 1월1일(일) / 회비: 2만원
곳: 스승예수제자수녀회(주최) 본원(서울)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곳: 2023년 1월28일(토), 개갑·김제순교성지(전주교구) / 문의: 010-3080-9104 사전접수 필수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2023년 1월7일~10일·1월27일~30일,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12월31일~2023년 1월2일(한라산 눈꽃 산행)·1월7일~9일·1월13일~15일·1월28일~30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자연 피정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돌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자연 피정

연말연시 피정 12월30일~2023년 1월2일(눈꽃산행)

눈꽃 산행 1월5일~7일, 1월27일~29일, 2월4일~6일, 2월12일~14일, 2월18일~21일, 2월24일~26일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8기 개강

때, 곳: 2023년 3월27일(월) 14시·3월30일(목) 19시, 가톨릭회관 5층 /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2023년 1월2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수제 묵주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본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곳: 초보자 수요일반 14시·토요일 오후반 14시,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정희 신부)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캠프 / 문의: 043)260-5076

때, 곳: 2023년 1월6일~8일(2박3일), 양업고등학교
접수: 12월26일(월) 오전 10시부터 양업고 홈페이지 팝업창 / 회비: 15만원

2023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원서접수: 2023년 2월10일(금)까지 / 우편접수 가능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문화형성학과(석사과정) / 전공: 문화형성, 사목형성
접수: 12월26일(월)~2023년 1월8일(일)
면접: 1월16일(월) 18시 예정 / http://gcs.catholic.ac.kr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반포) / 문의: 02)3147-8787

수어(手語=수화) 교실 개강(2023년)

곳: 프살 배움센터(성북구 종암동)·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부설(주최) / 문의: 02)941-1880(learning4@daum.net)
주간반 1월4일(수) 11시 / 저녁반 1월3일(화) 19시30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접수: 2023년 1월17일(화)까지 / ci.catholic.ac.kr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교리교육 학과	주 5일 주간(2년)	세세 3년 넘은 결집자 입회 2년 넘은 수도자
종교교육 학과	주 4일 야간(2년)	타 대학에 적이 없고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신학심화 과정	주 3일 주간(1년)	본원 교리·종교학과 준한 과정 이수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2023년 1월 개강)

각6주 과정 /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신약성경과 영성생활-치유에 대한 오해와 성서학적 진실	현장 강의: (월) 14시~16시 동영상 녹화강의: 링크 발송	임숙희 박사
구약성경 아카데미 신명기 강독-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가	현장 강의: (화) 19시30 분~21시 / 동영상 녹화 강의: 링크 발송	주원준 박사
의식(양심) 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매주(화) 동영상 링크 발송	권오연 신부

미사

생명이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곳: 도미니코 수도회(주최, 강북구 수유동)

성체미사	매주(수) 19시30분	문의:
성토마스 성체신심회	넷째주(토) 10시	010-5818-8431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12월27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때, 곳: 12월19일(월) 14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05-2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성서가족 열린미사(목3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홍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월 넷째주(일) 12월25일 15시
곳: 목3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인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예약): 010-3173-2665

가톨릭여성연합회 정기월례회

미사: 조성풍 신부(사목국장) / 문의: 02)778-7543
때, 곳: 12월20일(화) 10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내용: 송년미사 및 연말나눔 행사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영적 자유와 사랑을 위한 강의와 훈련	강사: 전원 신부(영성상담) 2023년 1월5일~2월23일 매주(목) 10시~13시(8주) / 회비: 25만원
전문 심리상담	정서불안, 우울, 분노, 의사소통의 어려움(부부·가족·개인)

유관단체 알림

햇살사목센터 후원회 미사

지향: 후원자와 그 가정, 자녀, 손자녀를 위한 미사
때, 곳: 매월 첫번째(토) 2023년 1월7일 오후 3시, 햇살사목센터(해화로2길20) / 문의: 02)744-0840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서울) 사제식당 직원 모집

분야: 사제식당 조리원 0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채용시까지 접수
문의: 02)740-9707, 8(http://songsin.catholic.ac.kr)

구산성지 관리원 모집 / 문의: 031)792-8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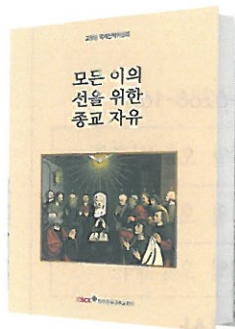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
업무: 정원 주차장 미화 관리 /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자기소개서, 본당 주임신부님 추천서
방문·우편(우 12903,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99) 및 이메일(gusan-hl@casuwon.or.kr) 접수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사회복지사	주 40시간
남녀 요양보호사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가능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살레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수도원(대림동)	010-2042-8353 심재현 신부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천주교서울교구천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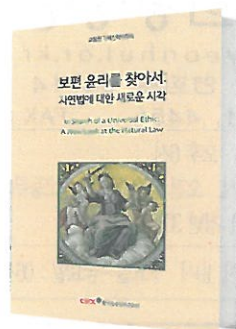


신간

모든 이의 선을 위한
종교 자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04쪽 | 7천원 | 문의: 02)460-7582~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문헌은,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 이후, 더욱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다원주의적, 세속주의적이 된 현대사회 속에서 종교 자유의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종교 자유의 개인적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 사이의 올바른 통합의 근거들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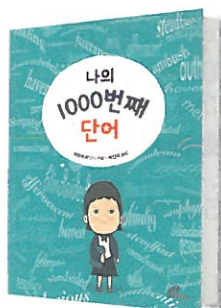


신간

보편 윤리를 찾아서:
자연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20쪽 | 7천원 | 문의: 02)460-7582~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이 책은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의 연구와 토론, 총회의 동의를 거쳐 발표된 문헌으로, 인류의 평화와 안전, 때때로 인간 정체성 자체까지 위협하는 정치, 사회, 과학, 경제, 환경 등의 위협에서, 인간의 존엄과 공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이를 증진하기 위한 보편 윤리의 토대와 원칙을 밝힌다.



신간

나의
1000번째 단어

매릴리 헤인즈 지음
바오로딸 | 212쪽 | 1만5천원
문의: 02)944-0944

단어를 수집하는 주인공 애니의 성장기가 담긴 어린이 소설이다. 애니와 친구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소개해야 하는 초등학교 졸업 과제를 준비하면서 서로의 격려와 도움으로 자존감을 갖게 되고,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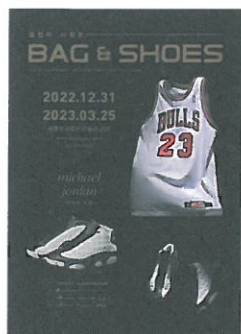


음반

가톨릭 음악 그룹
'위로 프로젝트' 4집

문의: 0507-1496-2026 서울아트랩

가톨릭 음악 그룹 '위로 프로젝트'가 싱글 앨범 4집 <그 언젠가>를 발매했다. 이번에 발표한 이 성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는 추모곡이다. 음원은 멜론, 벅스, 지니, 카카오톡, 플로 등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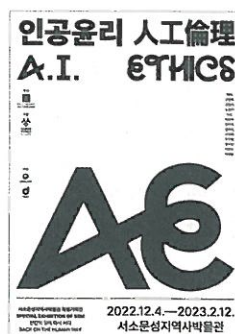


전시

셀럽이 사랑한
BAG & SHOES

일사: 12월 31일(토)~2023년 3월 25일(토)
문의: 02)399-1000
12월 3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인터파크·위메프'에서 얼리버드 티켓 55% 할인(티켓 사용 기한 1월 31일까지)

아일랜드그룹과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소장품 공개 특별전이 세종미술관 제12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 세계적인 유명인들의 가방과 신발을 상징적, 역사적, 조형적, 문화적, 기능적 정체성과 가치에 따라 나눠 스토리텔링한다. 특히 비오9세 교황님의 붉은 가죽 구두와 편지, 교황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지갑, 김수환 추기경님의 묵주와 친필 서명이 된 엽서 및 북마크 등도 함께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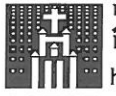
전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
인공윤리(人工倫理),
인간의 길에 다시 서다
A.I. Ethics - Back on the Human Way

일사: 12월 4일(주일)~2023년 2월 12일(주일)
장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주최·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문의: 02)3147-2407 / 무료 전시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떠오르고 있는 인권 문제를 '인공 윤리'라는 화두로 풀어낸 전시다. 인간이 만들어 온 윤리 규범이 공동체를 옹골게 견인하고 있는지 12인의 예술가가 내놓은 영상, 설치, 사운드, 회화, 조각 작품과 인권 관련 시각 자료를 통해 성찰한다.

제2259(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안락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오늘 24명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세례식 : 12월 18일 (주일) 11시 미사

◎ 성탄 집중 판공성사

일시 : 12월 15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 : 성전 및 임시 고해실

* 대림 기간 중 매 미사 전 판공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반디가 만드는 주님의 잔치 (특별미사)

반디주일학교 학생들이 모든 전례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새롭지만 편안한 특별미사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12월 18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 12월 17일(토) 15시 초등부미사는 없습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12월 20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일시	미사 시간
성탄 미사	12/24(토)	오전 6시 (평일미사) 오후 8시 (성탄 밤 미사) -대성전, 소성전
	12/25(일)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주일학교통합미사) 오후 6시

*성탄 밤 미사 후, 지하식당에서 주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잔치가 열릴 예정이오니 오셔서 기쁘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 남성울드레아

일시 : 12월 18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병자영성체 : 12월 23일(금) 오전 10시 미사 후

◎ 여성울드레아

일시 : 12월 27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주일학교 성탄제

초등부	12월 24일(토) 14시 ~ 18시 지하식당
중고등부	12월 24일 저녁 ~ 25일 아침 (구)성체조배실

◎ 성조들의 모후 Pr. 레지오 선서식

일시 : 12월 20일(화) 오후 7시 40분 / 307호

선서자 : 이재토 대건 안드레아

◎ 주님의 성찬에 함께 할 전례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청년20 예그리나 단장 (010-6339-6324)

청년30 프리모 단장 (010-9526-3217)

◎ 12월 3일 견진성사 개인사건

ID : yeonhui6414@nate.com / 비밀번호 : 12ab12

* 내메일함 견진성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건회(60대) 송년모임

일시 : 12월 22일(목) 오후 7시 / 201호

* 형제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박병근 세례자요한 (010-8293-8666)

정원근 다니엘 (010-5227-9379)

◎ 구역활성화를 위해 여성구역회에서 떡국떡과 만두를 판매합니다.

일시 : 12월 24일(토) 오후 3시~25일(주일)

가격 : 떡국떡 10,000원 / 1.8kg

만두(김치, 고기) 14,000원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12. 11)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101	882 (41.9%)	845 (40.2%)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37-04-110875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후
2022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12월 5일~11일)

정수진	칠만원	황정숙	일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김재관	삼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조순복	삼십만원
이종만	일십만원	조현화	오십만원
이지만	오만원	심준섭	일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대림 제3주일)

교무금.....12,390,000원

주일헌금.....5,510,000원

자선주일 2차헌금.....1,988,000원

입당	97	봉헌	210, 216	성체	156, 499	파견	91
----	----	----	----------	----	----------	----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 이시다